

# KDC 4판(1996)상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 문제\*

## Standardizing Korean transliteration of foreign proper names and loan words in headings and notes in the 4th edition of KDC

유 경 숙 (Kyung-Sook Yu)\*\*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KDC 4판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오류 분석 |
| II.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       | 1. 한글표기오류 유형                            |
| 1. 현행 외래어표기법                     | 2. 한글표기오류 사례                            |
| 2. 교과서, 산문, 국어사전<br>기타 출판물에서의 표기 | IV. 결론 및 제언                             |
| 3. 문헌정보학관련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표기규정        |   |
| 4. KDC 4판의 표기규정                  |   |

### 초 록

표준화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조직, 활용, 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도서관분야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이 논문은 한국의 표준분류표인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1996)의 분류항목과 주의 설명어로, 또 상관색인에서 기입어로 나타난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번자표기(음역)의 표준화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명이나 지명은 자료 검색시는 물론이고 상관색인과 본표사용을 통해 분류기호 배정시 접근점으로서 검색의 신속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명과 지명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900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Abstract

Standardization is a prerequisite of quality control in any field. Library field is not an exception. The bibliographic control structures of AACR2R, MARC, DDC, LCC, LCSH, ISBD are highly standardized and dependent on rigorous authority work, so that libraries and bibliographic utilities using these tools could provide effective quality services.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bibliographic control structures, this study focuses on inconsistencies in transliterated foreign personal and geographic names in headings, used as the caption of a given class as well as in notes describing what is found in a class or clarifying the notation hierarchy in the 4th edition of KDC.

This study also examines Korean transliteration of loan words in the schedule as well as the transliterated entries of the Relative Index.

\* 이 논문은 1998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경성대학교 인문학부(문헌정보학전공) 교수

## I. 서론

인명, 지명같은 고유명사는 자료 탐색시 전통적인 도서관목록, 색인, 서지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검색의 키가 제공되고 있는 오늘날의 온라인정보이용환경에서도 서명이나 일반주제항목에 못지 않게 자주 이용되는 접근점(access points)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명이나 지명은 문학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색인과 정기간행물색인에서, 도서관 소장자료의 온라인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 OPACs)이나, 도서관소장의 참고자료, 정기간행물기사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본문, 초록까지도 탐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또는 CD-ROM 오프라인정보검색시스템에서, 인터넷상의 웹자료에 이르기까지 색인어나 검색어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관심있어 찾아보는 인명이나 지명이 우리 것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명이나 지명, 또는 외래어일 경우 언어뿐 아니라 표기문자가 다르고 고유명사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서 검색어로 입력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있다. 때로는 이용자 자신이 특정한 정보검색시스템 내에서의 탐색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때로는 정보검색시스템레코드내의 동일한 인명, 지명 등에 대한 표기방법의 다양함과 일관성이 없으므로 해서 검색결과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평있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목록이나 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전거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서 동일 인명의 이형표목 중 어느 것을 검색해도 이형표목간에 상호참조가 마련되어 있어 같은 검색결과를 얻게 되고 또 유사표목, 관련표목들 간에도 연결이 잘 되어있어서 탐색시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비해, 전거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 온라인 목록이나 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입력된 검색어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인명이라도 검색결과가 다르고 또 어떤 것은 표기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검색결과가 "O"로 나오는 경우마저 있어 당황하게 된다. 특히 비로마자언어의 인명인 경우 로마자로의 번자표기법(Romanization)<sup>1)</sup>이 다양하며, 한글이 아닌 다른 문자에서 한글로 번자표기(Koreanization)된 인명의 경우도 한글 번자표기의 비표준화, 비일관성 때문에 외국인명을 통한 자료탐색은 시간이 걸리고 짜증나기 십상이다.

번자표목의 혼란과 무질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도서관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KORMARC 기

1) 번자(翻字)란 인명, 지명, 외래어등 한 단어나 때로는 문장까지 한 자모의 문자에서 다른 자모의 문자로 옮겨 적는 일을 말한다. 서울을 'Seoul'로 또는 'ソウル'로 鄧小平을 'Deng Xiao Ping'또는 '덩샤오핑', '등소평'등으로 옮겨 적는 일이다. 번자란 영어의 phonetic transcription(音聲轉寫法), transliteration(轉字法·字譯), script conversion에 해당하는 문헌정보학용어로서, Romanization(로마자표기), Koreanization(한글표기), Cyrillization(키릴문자표기) 등이 모두 번자이다. 국어사전에는 음역(音譯)으로 표제어가 나와있다. 번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논문 "다언어 다문자장서의 서지통정수단으로서의 번자에 관한연구" 경성대논문집 제 18집 1권(1999.3) : 353-399를 볼 것.

술규칙과 KORMARC 형식을 따라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위한 지침이 전무하고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시 따라야하는 번자규정(transliteration standards)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KORMARC 기술규칙내의 무원칙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외국인명 표기의 원칙」과 현행 외래어표기법사이에서 국내도서관들은 방황하고 있으며 때로는 어설플 자관의, 또는 사서개인의 표기법까지 동원되어 한글 번자표기는 표준화는커녕 그야말로 천태 만상이다.

다행히 국내의 초·중·고등교과서나 국어사전, 백과사전, 신문, 지도책 등에서의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표기는 개정된 한글맞춤법의 일환으로 수용된 현지 발음을 중요시하는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그런 대로 표준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물론 거리의 간판이나 신문, 잡지의 광고, 상표, 상호 기타 선전 홍보물에서의 표기는 상업적 효과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표준화된 표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문제는 대학교재나 학술논문집, 각종 번역서 등에서의 외국인명, 지명 및 학술용어, 외래어의 표기가 무척 느슨하다는 점이다. “내가 잘 아는 외국어이니까” 외래어표기법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기 아는 대로 외국어 발음을 적당히 한글로 표기하는 집필자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한심스런 언어 불명의 국적불명의 “짬뽕식” 한글 표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외래어표기법은 고사하고 해당 외국어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발음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어디에선가 잘못 번자 된 것을 베끼거나, 또는 외국어문자를 무턱대고 라틴어처럼 한 자 한 자 그대로 발음하여 한글로 표기한 외국인명, 지명을 대할 때마다 차라리 인명, 지명만큼은 원어문자 그대로 표기해주는 것이 정보전달의 정확성상 훨씬 바람직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읽는 사람한테 발음의 책임을 떠 넘겨 버리는 게 낫겠다는 말이다.<sup>2)3)</sup>

실제로 문헌정보학계의 대부분의 학술지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의 국내학회지 수록을 위한 논문투고 규정에도 원어명은 한글로가 아닌 원어 그대로 적으라고 하고 있다. 어설플 한글 번자표기는 오히려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만두라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논문의 의도는 정보화시대의 기수로서 방대한 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검색, 활용, 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국내도서관들이 자료조직의 표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목록

- 
- 2)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목록정보」 검색중 필자가 보게된 ‘현대정보관리학총서5’로 간행된 C. Guinchat 와 M. Menou 공저의 General introduction to the techniques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ork(Unesco, 1983)의 한국어번역서 「정보관리론」(사공철, 김태수공역, 구미무역출판부, 1987) 목록레코드에서의 원저자명 Guinchat, Claire [gɛ̃ʃa][kle : r] ‘갱샤, 클레르’란 프랑스인명에 대한 표준화표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진차트, 클레어(011001)’, ‘권차트, 클레어(125003)’, ‘퀸차트 C(121005)’등 언어불명의 표기로 어지러웠다.
- 3) KDC4판(1996) 본표 900대에서 프랑스역사중 926.031과 926.035아래 주의 설명어로서 나열된 프랑스왕명의 한글표기도 외래어표기법과 프랑스어발음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를 잘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규칙(KCR 3.1),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KORMARC 기술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 한국십진분류법(KDC 4) 등이 서지통정의 기본도구로서 외국인명, 지명 및 외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면에서도 정보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거통제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표준화마인드를 지향하고 있는지 검토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여러해 전에 KCR, KORMARC기술규칙을 검토해본데 이어 이번에는 표준분류표인 KDC 4판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조직업무에서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번자표기의 표준화 내지 일관성은 정보검색과 전달의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간에 혼자서 KDC 4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비효율적인 방법대신에 주제의 특성상 외국인명, 지명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역사 및 지리 분야를 다룬 900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외래어표기 검토대상분야로는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가정학 및 가정생활을 취급한 590대를 선정하였다. 그밖에도 외국어명이 나오는 언어와 문학을 다룬 700대와 800대를, 그리고 서양 철학자명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160대, 또한 본표의 분류항목과 주의 설명어 뿐 아니라 동의어, 유사어,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이형표목, 또한 본문에 설치되지 않은 주요 관련항목까지 선정배열 함으로써 자료 분류시 해당 분류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상관색인도 시간 제약상 밀착 검토대상에는 포함할 수 없었으나 약칭, 두문자어의 표기오류 실례를 지적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골자를 짚어보고 난 후 국어사전 기타 출판물에서의 표기, 문헌정보학관련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표기규정, KDC 4판의 표기규정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KDC 4판 본표와 상관색인상의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 Ⅱ.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법

### 1. 현행 외래어표기법

KDC 4판은 본표 범례에서 본표 내의 “외국의 인명, 일반명사 및 기타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은 1988년 문교부제정 「외래어표기법개정안」에 따랐다”고 하고 있다.<sup>4)</sup> “대체로”라고는 하

4) 필자의 견해로는 1988년 문교부제정 「외래어표기법개정안」은 1986년 확정고시된 「외래어표기법」이 잘못 표현된 것이라 본다. 1988년 문교부의 개정한 한글맞춤법(문교부고시 제88-1 : 1988.1.19) 제1장 총칙 제3항에서 말하는 ‘외래어표기법’은 1988년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1986년 고시된 문교부의 표기법을 말한다.(cf. 정서법자료, 이승구편저 전정판,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p. 165)

였으나 KDC 4판이 독자적인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국내의 교과서, 사전, 신문 등에서 이미 준용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분류표 내에서 사용된 외국인명, 외국어, 외래어의 한글표기를 하였다고 하니 KDC 4판내의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표기의 오류를 검토해 보기 전에 외래어표기법의 골자를 드러다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외래어표기법이란 명칭 때문에 혹시 외국인명이나 지명의 표기를 위한 외국어 표기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바로 이 외래어표기법이 원래는 외국어였으나 오래도록 사용하다보니 외국어란 느낌이 없이 아예 국어화된 외래어 뿐 아니라 우리 국어 문맥 속에 쓰이게 되는 외국인명이나 지명, 외국어 용어 등의 한글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국어표기법의 일부로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타협”<sup>5)</sup>이지 절대로 외국어를 배우거나 가르치기 위한 발음표기법이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표기법」은 문교부가 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연구원)에 위촉한지 8년만인 1985년 12월 28일 제정 발표한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을 개정 보완한 것이다. 이 표기법은 이듬해 1986년에 총무처 발간의 관보에 확정고시 되었으며<sup>6)</sup> 1988년에 문교부가 확정 고시한 개정한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중 제3항에서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고 함으로서 외래어표기법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과 함께 우리 국어 표기법의 일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1986년의 확정 고시안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7개 언어의 표기법만 수록되었으나 1992년에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의 5개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표기법이 추가되었고,<sup>7)</sup> 1995년에는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의 3개 북구권언어의 외래어표기법이 추가되어<sup>8)</sup> 현재 15개 언어의 표기법이 확정 고시된 상태이다. 그 밖의 언어에 대해서도 국어연구소 외래어 용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해 놓은 예규가 있어<sup>9)</sup>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등의 한글 표기시 준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외래어표기법을 들여다 보면 1933년의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제6장 외래어 표기)」로부터 조선어학회의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0), 문교부의 「들온말 적는법」(1948),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1958), 문교부 편수자료 1~4집(1959-1963)을 거쳐 마침내 문교부의 「외래어표기법(1986)」에 이르기까지 표음주의에 치중하여 1차 다음주의를 택한 「들온말 적는법」을 제외하고는 기본원칙에 큰 변함이 없다.<sup>10)</sup> 즉 외래어의 한글

5) 김세중 “외래어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1996, 겨울) p. 173

6)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 1986. 1. 7

7) 문화부 고시 제 1992-31호 ; 1992. 11. 27

8)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5-8호 ; 1995. 3. 16

9) 문교부/국어연구소 편. 외래어표기법용례집(지명·인명) (서울 : 법제연구원, 1986) p. 46

10) 외래어 표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외래어표기법을 특집으로 다룬 국립국어연구원 계간지 「새국어생활」 제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표기시 원지 발음을 존중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다른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아무리 표음주의에 입각해 한글 표기를 한다 해도 원칙적으로 '1자1음주의'를 지향하며,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해 적는다는 점이다.

이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골자를 함께 보기로 한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2장 표기일람표

제3장 표기세칙

제4장 지명, 인명 표기의 원칙

이 중에서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은 5개항으로서 다음과 같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 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너무나도 자명한 원칙들이라 굳더더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다만 제5항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어떤 외래어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관용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인지 처음부터 관용의 형태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어진 외래어의 범위와 용례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관용의 범위와 용례는 정부/언론공동심의위원회가 필요한 때마다 외국수상, 대통령, 운동 선수명, 태풍명, 외국 학술용어, 외래어 등의 한글 표기를 사정, 심의하여 결정, 발표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계간지 「새국어생활」이나 한국교열기자들의 계간지 「말과글」의 부록으로 이들 표기가 수록되어 나오고 있다.

위의 기본 5개 조항 외에 꼭 추가되어야 할 두 개의 표기규정이 있다. 하나는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영어의 표기세칙(제7항)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영어의 표기세칙은 다른 언어의 한글 표기시도 일반규칙으로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ard[ka : d]는 '카아드'나 '카드'가 아닌 '카드'로 news는 '뉴우스'나 '뉴-스'가 아닌 '뉴스'로 표기한다. 다른 하나도 역시 영어의 표기세칙(제4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구개음의 우리말 표기시 'ㅈ, ㅊ'등으로 표기되는 [dʒ], [ʒ], [tʃ] 등의 발음과 모음의 결합을 한글로 표기시 '자, 저, 죠, 주', '차, 처, 초, 추' 대신에 발음상 차이가 없고 간소화된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래서 juice는 '쥬스'가 아닌 '주스'로 Churchill은 '처칠'이

6권 제4호(1996, 겨울)을 참고할 것. 또는 필자의 논문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 목록상의 번자표기 문제"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9집(1988.3) : 151-173을 참고할 것.

아닌 ‘처칠’로 Chocolate은 ‘쇼콜릿’이 아닌 ‘초콜릿’으로 표기한다.

외국인명이나 지명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래어표기법의 기본원칙과 함께 영어의 표기세칙을 알아야만 한다. 비록 간단하게나마 언어별 표기세칙이 있기는 하나 영어의 표기세칙 중 일반적인 것은 다른 모든 언어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따라 표기하도록 돼있으며 그 밖의 언어는 철자가 곧 음성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임으로 각 언어별 자모와 한글대조표에 따라 표기해야 함으로 우선 한글 표기해야할 외국인명이나 지명이 어느 외국어의 것인가를 알기 전에는 무턱대고 아무 표기일람표나 붙잡고 그것에 따라 번자표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경우 해당 외국어 발음을 잘 알더라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한, 독한, 불한사전에서 발음을 나타내는 국제음성기호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Robert라는 로마자 표기 인명을 보고 덮어놓고 ‘로버트’라고 한글 표기하면 곤란하다. 영미계 인명은 로버트[rɔbət]겠으나 프랑스계는 로베르[rɔbɛ : r], 독일계는 로베르트[ró : bert]이기 때문이다.

「애수」란 영화의 미국배우는 로버트 테일러(Robert Taylor)이지만, 독일작곡가는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이고, 프랑스 영화감독은 로베르 브레송(Robert Bresson)이라 읽어 표기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외국인명, 지명, 외래어 등의 한글 표기는 다음에 소개되는 국립국어연구원 편의 참고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국어사전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으나 서양인명의 경우는 흔히 이름은 제외하고 성(Family name)만의 한글 표기가 나와 있어 인명표기 확인에는 충분치 않다.

1. 외래어표기용례집(지명, 인명), 1986.
2. 외래어표기용례집(일반용어), 1988.
3. 외래어표기용례집(동구권 지명, 인명), 1993.
4. 외래어표기용례집(북구권 지명, 인명), 1995.
5. 한국어문규정집, 1995.

국립국어연구원의 간행물임으로 비매품인데 비해 똑같은 내용이 조금 다른 포맷으로 나온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의 「국어어문규정집」(1996)은 쉽게 구할 수 있다.

6. 기본외래어용례집, 1995.
7. 외래어표기용례집/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제1차~제125차결정), 1998.

이밖에도 한국교열기자회의 「외래어사전」(1987)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외래어사전」(1994)이 표준화된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 확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단

지 경계해야 할 것은 위의 두 외래어사전에서 채택한 서양인명 표목의 경우는 영미 목록규칙에서 전거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완전명(full name)인 경우가 많아서<sup>11)</sup> 목록 레코드 작성시 표목의 형태로 채택하거나 그 밖에도 서지통정자료나 인터넷상에서 인명 탐색시는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표기를 하기 전에 잘 알려진 정평있는 참고자료나, 해당 국가의 인명사전을 통해 그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의 형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 교과서, 신문, 국어사전 기타 출판물에서의 표기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내의 초·중·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외국인명, 지명,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준화 되어있다. 일간신문이나 세계지도, 국어사전도 표기가 표준화 되어있으나 일반 출판물의 경우는 외래어 표기가 우리 국어정서법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만이 제대로 되어있고 표기가 제가꿈인 것도 있다. 역사나 지리관련 서적에서, 또 색인 사용시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얼마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서 잘 알고들 있을 것이다. 전거 형태의 표준화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동일 인명이나 지명의 이형표목들간의 상호 참조만 돼있어도 좋으련만.

특히 중국인명이나 지명, 일본한자인명이나 지명의 한글 표기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해서 겪는 시간낭비는 엄청나다. 외래어표기법에서는<sup>12)</sup> 일본한자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관용을 허락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 東京의 경우 동경/도쿄 모두 허용) 모두 일본 한자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인명의 경우는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별하여 신해혁명(1911)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인명은 우리 한자음으로 그 이후의 인명은 중국원자음으로 읽어서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중국지명의 경우는 현재 쓰이지 않는 역사지명만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음으로 읽어 표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그러나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락한다고 함으로써 같은 한자의 독음이 나라마다 다른 관계로 발생하는 한글 표기의 다양성은 표준화표기 없이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일간신문에서의 일본한자인명과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이 나온 이후 일찍부터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 일본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때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해 주고

11) 일례로서 위의 두사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좁은문(La porte étroite)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André Gide)를 찾아보면 프랑스인명 사전이나 대표적 영어 참고 자료에 나오는 가장 잘 알려진 Gide, André로 나와 있지 않고 완전명인 Gide, André Paul Guillaume(지드, 앙드레 폴 기욤)으로 나와 있다.

12) 외래어표기법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중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있으나(예, 오부치케이조(小淵惠三); 고베(神戸)) 중국인명, 지명만큼은 우리 생활 속에 한자가 깊숙히 침투되어 우리음으로 읽어 온 데다가 한자의 중국음에 전혀 습관이 되어오지 않은 탓인지 외래어표기법 적용을 뒤로 미루다가 차츰 스포츠계, 연예계인사부터 중국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3,4년 전에 와서야 조심스레 정치, 경제면에서도 중국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 시작했다. 일부 신문은 아직도 江澤民은 그냥 한자로 쓰든지 아니면 한국음으로 읽어 강택민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비해 이제 대부분의 신문은 장쩌민(江澤民)으로 외래어표기법에 준해 표기하고 있다. 鄧小平도 등소평이라 표기하는 신문도 있으나 대부분 덩샤오핑(鄧小平)으로 또 지명도 길림성보다는 지린성(吉林省)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걸 보니 아무래도 시대의 발전추세를 거역하기란 어려운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출판물에서, 대학교재에서, 학술논문집에서 중국, 일본의 한자인명, 지명의 표기는 우리 식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자 그대로만 표기하고 있다.<sup>13)</sup>

### 3. 문헌정보학관련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표기규정

초·중·고등교과서나, 신문, 사전에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대학교재나 학술논문집에서의 외래어표기는 오히려 느슨함을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효율적인 서지통정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문헌정보학계에서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 속의 외국인명, 지명, 외국어, 외래어의 표기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여기 몇몇 학회지의 규정을 모아 보았다.

####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 1993. 3.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2장 10항(1996. 2. 15개정 ; 1999. 1. 20개정)

"국문원고에 기술된 외국어나 외래어는 한글 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외국어 그대로 적는다."

외국인명은 그대로 외국어로 적는다고 함으로서 한글 표기의 표준화 문제는 제거되었으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한글 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고만 했을 뿐 외래어표기

13) 한국교열기자회의 「말과글」, 국립국어연구원의 「새국어생활」, 또는 신문독자란을 통한 유만근교수의 끈질긴 주장, 즉 일본, 중국의 지명, 인명은 반드시 우리한자음으로 읽어 표기해야만 된다는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힘이 든다. 그러나 놀랍게도 KDC 4판(1996)은 중국, 일본의 한자인명, 지명에 우리식 한자음을 고집하여 상관색인에 가나다순으로 다른 일반 한자어와 함께 배열하고 있다.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4호)

법을 따르라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외국어 능력이나 주관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표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2)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통권31호), 1999. 3.

한국정보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장 제24항(1999. 1월 개정)

“국문 논문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가능한 한 한글 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 한다. 단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외국어로 그대로 적는다.”

위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 1999. 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제13항(...1999, 2월 11일 3차 개정)

“단위와 고유명사는 원어로 쓰고...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어로 쓰라고 했으니 한글 표기문제는 제거되었으나 외국어, 외래어의 표기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앞서 다른 학회지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재량에 따라 “적당히” 원음을 한글로 표기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4) 「도서관 문화」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한국도서관협회의 기관지인 「도서관 문화」는 일반논문투고 요령에 외국인명, 지명, 외래어의 표기에 관한 지침이 없다. 그러나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1998. 9. 24 ~ 9. 26) 발표논문요강에는 논문작성 요령사항 중에(제7항)

“단위와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며, 외국의 지명 기타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1986년 1월 7일 확정 공고된 외래어표기법(문교부 제85-11호)을 따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비록 문헌정보학관련 학회지 논문 속에서 외국인명은 한글로 적지 않고 외국어 그대로 적음으로서 한글 표기 문제는 피해 갔다고 하겠으나 외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다른 학문분야 학술지에 비교해 별로 나올 것이 없다.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 Catalog

하나만 보아도 ‘카탈로그’란 외래어표기법에 의한 바른 표기 외에 ‘카타로그’, ‘캐탈로그’, ‘캐타로그’등으로 표기 되어있으며, network도 ‘네트워크’란 바른 표기외에 ‘네트웍’, ‘넛트웍’, ‘넛트웍’등 다양하며 microfiche도 ‘마이크로피시’란 바른 표기외에 ‘마이크로피쉬, 피쉬, 피슈, 피슈’등으로 다양한 표기가 눈에 띈다.

#### 4. KDC 4판의 표기 규정

한국십진분류법해설(1997)이 자평하고 있는 것처럼 KDC 4판은 DDC 20판(1989), NDC 9판 시안 외에도 동서양의 대표적인 분류법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편찬된 “우리나라 도서관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분류표”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KDC 4판내의 주제개념을 용어화 하는 단계에서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 사용한 외국인명, 지명, 외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특히 장음표기나 구개음표기의 오류가 많았던 3판(1980)에 비하면 대폭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 외래어표기법에 의한 표준화 표기가 아닌 것이 눈에 띈다. 서양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를 보면 언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관성 없이 표기된 것이 많고, 또 분류항목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원어명, 원지명의 한글 표기 대신에 DDC에서 영어권 독자를 위해 사용하는 영어식 명칭<sup>14)</sup>의 한글 표기를 사용한 곳이 적지 아니하다. 그것도 원칙도 없이 들쭉날쭉하게, 어느 때는 원지명을, 또 어느 때는 영어식 명칭을 사용했다. 따라서 해당 분류기호를 신속하게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상관색인에서도 영어식 명칭의 한글 표기만 나오고 정작 우리 나라의 교과서, 신문, 국어사전, 지도책 등에서 사용되는 원지명의 표준화된 한글 표기는 누락되어 있어 상관색인이 제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

KDC 4판 상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 오류의 유형을 정리해 보기 전에 KDC 본표와 상관색인의 범례에서 KDC가 마련한 표기규정을 이제 살펴 보기로 한다.

##### < KDC 4판 본표의 범례 > (p.43)

1. 外國의 人名, 一般名辭 및 外來語의 한글 表記法은 대체로 1988년 文敎部制定 「外來語表記法改正案」에 따랐다.
2. 外國語 發音에 따라 한글로 表記한 것은 대체로 그 다음에 原語를 附記하였다.

14) DDC상관색인에 수록된 외국인명, 지명의 형식은 AACR2R에 나오는 영어화한 외국인명이나 지명, 즉 LC 전자 파일에서 전자형식으로 채택된 영어명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전자표목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원어명, 원지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도 있다. 영어권나라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명을 채택했을 경우 대개 원어명도 상관색인에 기입어로 수록하고 있다.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3. 専門用語는 각 學會에서 採擇한 標準用語를 使用하였다. 그러나 標準用語로 採擇되지 못한 것은 英語 發音에 따라 한글로 表記하고 原語를 附記하였다.
4. 分類法 本表에는 洋書分類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純粹科學, 技術科學 및 歷史 등의 項目名을 英語로 附記하였다.

10개 조항 중에 1~4까지만이 표기관련 조항이다.

< KDC 4판 상관색인의 범례 > (p.3)

1. 이 相關索引은 本表의 分類項目, 註의 說明語 및 例 등 全 主題語를 가나다順에 따라 排列하였다.
2. 中國과 日本의 人名, 地名 및 書名은 漢字로 統一하여 使用하였기 때문에 漢字의 接近排列을 위하여 우리 나라 發音에 따라 排列하였다.
3. 同一發音의 것은 그 限定語의 順序로 排列하였다.
4. 外國의 人名, 地名, 書名, 一般名辭 및 外來語의 한글 表記法은 本表 凡例를 參照하기 바란다.
5. 索引에서는 外國語의 附記를 省略하였다.

10개 조항 중에 1~5까지가 표기 관련 조항이다.

위의 범례에 의하면 KDC 4판 상의 외국인명, 지명, 외국어명사,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대체로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따랐다. 다만 중국인명과 지명, 일본한자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을 따라 한자의 중국음, 일본음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본표 내에서는 한자로만 통일하여 표기했으며 상관색인에서도 그대로 한자로만 표기하여 우리 나라 한자어들과 함께 우리의 한자 발음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KDC의 이러한 예외결정은 3판을 끝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수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한글과 한자병용의 시대라고 하지만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어찌자고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중국인명, 지명, 일본인명, 지명을 무시하고 우리만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식 한자음으로 계속 고집해 읽고 기억하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본표 내에서 한자표기를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관색인에서는 색인어로서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 중국 원지음 발음의 한글 색인어, 역시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 일본 원지음 발음의 한글 색인어도 반드시 수록했어야만 했다. 그렇게 했어야만 제구실을 하는 상관색인이 되었을 것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조직과 검색을 위한 표준분류표란 것이 무색하지 않는가. 도대체 누가 티베트(Tibet)를<sup>15)</sup> 찾을 때 西藏이란 한자어를 찾아 볼 것이며 오

15) 언젠가 문헌분류법 시간에 open book test로 KDC이용 시험을 볼적에 내준 주제중에 “티베트의 문화”에 대해 적절한 분류기호를 찾느라 고전하는 학생들을 보았다. 티베트란 지명이 상관색인에 나와 있지 않고

키나와(Okinawa)를 찾을 때 沖繩이라는 읽을 줄도 모르는 한자어를 찾아 볼 것인가, '총승'이라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 이상 더 중국인명, 지명, 일본한자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자의 한글 표기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Ⅲ. KDC 4판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 오류 분석

#### 1. 한글 표기오류의 유형

KDC 4판 전체를 검토대상으로 삼기에는 혼자서 역부족이라 주제의 성격상 외국왕명, 왕조명, 외국지명, 역사적인 사건명 등 외국 고유명사가 중점적으로 열거된 역사와 지리 분야를 다룬 900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910(아시아), 920(유럽)을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의 오류는 가정학 및 가정생활을 다룬 590대를 중심으로, 그밖에도 서양 철학자명이 열거된 160대, 외국어명이 열거된 700대 언어 중에서 739(기타 아시아제어), 759(기타 게르만어), 790(기타 제어)의 분류항목과 주의 설명어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글 표기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구분표와 상관색인도 포함하였으며 적절한 표기오류유형을 추려내기 위해 본표의 다른 주제 분야도 일부 포함시켰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은 외래어표기법과는 무관하게 오래도록 관용을 존중한 표기가 수용되어 온 만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한자인명, 지명도 이미 본표와 상관색인의 범례조항에서 밝혔듯이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본표와 상관 색인에서 한자로만 통일해 적고 상관색인에서의 기입어의 배열순서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다른 기입어들과 혼합 배열했으므로 역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본표와 상관색인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한글 표기오류의 유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1) 원어명, 원지명이 아닌 영어식 명칭으로부터의 한글 표기<sup>16)</sup>

오직 西藏이란 한자어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Tibet가 중국의 자치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면 모를까 대부분은 당황해 했다. DDC의 상관색인을 보니 Tibet(China) 외에도 Xizang Zizhiqu(China)란 西藏自治區에 해당하는 한음병음자모표기의 색인어가 수록되어 있어 지명 찾기가 쉬운데 비해 KDC는 DDC를 참조는 하면서도 정작 도움이 많이 되는 색인어 선정시는 소홀히 한 듯 하다.

16)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외국인명, 지명이나 외국어가 원지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국어사전, 초·중·고등교과서, 신문 등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한 원어명, 원지명으로부터의 한글 표기대신에 영어권사람들을 위해 변형된 영어화한 명칭으로부터 한글로 표기한 예가 적지 않다.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오류를 운운하기 전에 이미 고유명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이다. 아마도 DDC 20판을 참고하다보니 DDC에서 분류항목에 사용한 영어식 명칭을 외국원지명, 원어명으로 생각하고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지역구분표에도 몇 개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보 기

① 지명<sup>17)</sup>

키프로스(그리스문자 Κυπρος ; 로마자표기는 Kypros)란 원지명의 한글 표기 대신에 사이프러스(Cyprus)란 영어식 명칭의 한글 표기를 택했으며 (본표 918.79 와 지역구분표) 카프카스(키릴문자 Каказ ; 로마자표기는 Kavkaz)란 원지명 대신에 영어식 명칭인 코카시아(Caucasia)를 택했다.(본표 916.9와 지역구분표)

② 인명

프리드리히(Friedrich)대왕이란 독일왕명 대신에 영어명인 프레더릭(Frederick)대왕이라 표기했으며 (본표 925.046), 장(Jean) 1세라는 프랑스왕명을 영어명 존(John) 1세 등으로 표기했다.

“양서분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수과학 및 역사 등의 항목명을 영어로 부기하였다” 고 본표 범례 4항에서 언급하고는 있으나 다른 분야도 아닌 외국 고유명이 많이 나오는 역사 분야에서 영국왕도 아닌 독일왕명을 어느 것은 영어명으로 또 어느 것은 독일어명으로, 영국 왕도 아닌 프랑스왕명을 어느 것은 영어명으로, 또 어느 것은 프랑스어명으로 무원칙하게 일

중국을 통해 한자어로, 또 일본을 통해 일본식 발음의 명칭으로 그리고 미국을 통해 영어식 명칭이 들어와 사용되다 보니 같은 인명, 지명의 표기가 다양해지고 혼란스러웠던게 사실이다. 아직도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가 바람직 스러울만치 표준화 된 것은 아니며, 물론 완벽한 표준화란 있을수도 없는일일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이 시행되온지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외국인명, 지명은 그런대로 통일된 표기가 정착돼가고 있다. 아직도 스웨덴, 스페인같이 영어식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서 관용을 존중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것도 있기는 하다. 대부분은 원지음을 존중한 표기로 바뀌었으므로 표준분류표로서 보다 신중한 확인작업을 거쳐야만 했다고 생각된다.

17) 영국령이었다가 1960년에 독립한 지중해 동부의 섬공화국인 키프로스의 원지명은 그리스문자로 Κυπρος로서 로마자번재(음역) 표기는 Kypros이다. 그러나 영어권 사람들이 그들 언어의 음운규칙에 맞게 영어화한 명칭(영어명)은 Cyprus(사이프러스), 프랑스 사람들의 프랑스어 음운규칙에 따라 만든 프랑스어명은 Chypre(시프르),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명은 Zypern(치페른)으로서 같은 로마자를 표기문자로 사용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간에도 지명이 각각 다르게 로마자로 철자되어 있다. 로마자와 키릴문자간의 차이점도 바로 들어 나는데 같은 p라는 글자가 로마자에선 음가가 [p]인데 비해 키릴문자에선 [p]의 음가임을 볼 수 있다.

관성없이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에 혼용하여 여간 혼돈스럽지 않다. 편의위주로 아예 KDC내의 모든 분류항목을 DDC에서 사용하는 영어명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본표와 상관색인에서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따라 외국인명, 지명을 표기하겠다고 해 놓고서 이럴 수 있는가. 더구나 관용을 존중하는 예외적인 표기도 아닌데 말이다.

## 2) 구개음 [tʃ], [dʒ], [ʒ]의 한글 표기<sup>18)</sup>

구개음의 한글 표기는 앞서 외래어표기법의 기본규칙 설명시 상세히 설명한바 있다. 본표에 바르게 표기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잘못 표기되어 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자. 바른 표기는 화살표 다음에 적는다.

### 보 기

593. 6	차밍	charming	→ 차밍
677. 7	밴조	banjo	→ 밴조
739. 83	자쿤어	Jakun	→ 자쿤어
914. 72	자바	Java	→ 자바
942. 073	존슨, 린든	(Johnson, Lyndon B.)	→ 존슨

상관색인은 이들 구개음의 잘못된 한글 표기로 인해서 어지럽다. 어느 것은 본표에 바른 표기가 나와 있어서 상관색인에 잘못된 표기를 이형표목의 색인어로 기입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것은 본표에 잘못된 표기가 선정이 되어 색인에는 아예 바른 표기가 누락 돼있는 등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구개음의 잘못된 한글 표기는 본표에서 모두 고쳐져야 하며 상관색인에는 잘못된 표기가 이형표목어로서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명이 바뀐 '버마'와 '미얀마'관계는 이형표목으로 기입어를 삽입해 주는 게 마땅하지만 구개음 표기는 철자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마찰음 [ʃ]의 한글 표기<sup>19)</sup>

비록 같은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따라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영어, 독일어, 프랑

18) 외래어표기법 해설 제3장 제1절의 제3항과 4항(영어의 표기세칙)을 참조 할 것.

19)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3항(영어); 제3장 제2절 제4항(독일어); 제3장 제3절 제2항(프랑스어)을 참고할 것

[ʃ]음에 대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한글 표기 비교는 필자의 논문 “국어정서법상의 외래어표기 문제 :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경성대 논문집 제14집 1권(1993.3) : 191-223과 “Bach는 바흐인가 바하인가 : 도서관 목록상의 독일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경성대 논문집 제19집 1권(1998.2) : 605-627을 참고할 것

스어이긴 하지만 [ʃ]음 만큼은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표기 규정을 갖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영어의 경우 어말의 [ʃ]는 ‘시’로 적으나 자음 앞의 [ʃ]는 ‘슈’로 적는데 비해, 독일어나 프랑스어의 경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항상 ‘슈’로 적기 때문이다. 모음 앞의 [ʃ]는 세언어가 모두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서,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그래서 영어의 flash[flæʃ]는 ‘플래시’로 적고 (‘후레쉬’나 ‘플래쉬’가 아님) shrub[ʃrʌb]는 ‘슈러브’(‘쉬러브’나 ‘시러브’가 아님)로 적는데 비해 독일어의 Mensch[mɛnʃ]는 ‘멘슈’로, Mischling[miʃliŋ]은 ‘미슐링’으로 프랑스어의 vach[vaʃ]는 ‘바슈’로, Michelin[miʃlɛ̃]은 ‘미슐랭’으로 적는다.

**보 기**

- 독일철학가 165.34 쉴레겔 (Schlegel)→ 슬레겔
- 독일철학가 165.33 셸링 (F. W. Schelling)→ 셸링
- 프랑스학과 160.323 샬틀學派 (School of Chartres)<sup>20</sup>→ 샤희르르學派
- 기독교분과 239.97 웨이커파 → 세이커파<sup>21</sup>)

4) 유음 [l]의 한글 표기<sup>22)</sup>

때때로 [r]과 [l]의 구별이 안된 표기가 눈에 띈다. 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앞에 올 때에는 ‘리 르’로 적는 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몇 개만 적어본다.

**보 기**

- 595.41 리노리움 (linoleum) → 리놀룸
- 595.43 브라인드 (blind) → 블라인드
- 677.65 만도린 (mandolin) → 만돌린
- 739.71 마라야람어 (Malayalam) → 말라알람어
- 739.92 테레구어 (Telegu) → 텔레구어

[l]의 표기 오류는 특히 700(언어)과 800(문학)에 많다. 739, 759, 790에서 잘못 표기된 언어명은 해당언어로 쓰여진 800의 문학 분류항목에도 그대로 잘못되어 있다.

20) Chartres[ʃɑtrɛ]는 프랑스 중북부에 유명한 샤희르르 대성당이 있는 지명임. ‘샤희르르’가 올바른 표기임. ‘샬틀’은 말도 안되는 표기임.

21) 18세기 중엽 Quaker 파에서 생겨난 세이커교도(Shaker)는 예배때 몸을 흔들며 춤을 춘데서 붙여진 이름이라함.

22) 외래어표기법 제3항 제1절 제6항을 참고할 것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n]) 앞에 올때의 인명표기의 오류는 눈에 띄지 않았다. Wilhelm이란 독일어 명(영어명은 William)이 바르게 빌헬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Köln은 쾰른이 아닌 쾰른이 될것이다.



### 5) 영어권 인명, 지명표기의 오류

영어는 철자와 발음 관계의 괴리가 무척 심한 언어로서 영어의 모음철자 a 하나만 보아도 [a], [ɑ], [æ], [ei], [ɔ]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그러므로 한글 표기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데 철자가 a 라고 하여 적당히 ‘아’로 표기 한 것이 적지 않다.

본표 속의 a 철자를 가진 영미계 인명의 단골 한글 표기오류를 몇 개만 들어본다.

William	‘윌리엄’	→	윌리엄
Richard	‘리차드’	→	리처드
Abraham	‘아브라함’	→	에이브러햄
Adam	‘아담’	→	애덤

특히 942(본표 p.934) 미국대통령 이름의 한글 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영어 철자를 “적당히” 발음기호처럼 읽어 한글 표기한 흔적이 역역하다.

그밖에도 된소리를 쓰지 않아야 하는데 된소리로 표기한 경우 (씨디롬, 알쯔하이머),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모음 표기를 한경우(알코우브), 외국 자음 표기의 경우 한글에서 음절의 받침으로 표기해야 하는 때와 받침이 아니라 “으”를 붙여 독립음절로 표기해야 하는 때의 구별이 안된 표기오류도 발견된다.

다음의 본표 내 한글 표기오류 실례에서 이들 표기오류가 모두 지적될 것이다.

## 2. 한글 표기오류 실례<sup>23)</sup>

### 1) 외국인명, 지명의 표기

900대(역사 및 지리) 중에서 910(아시아)와 920(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와

23) KDC 4판의 외국인명, 지명, 외래어의 한글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한 전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외래어표기용례집(지명, 인명) 서울 : 법제연구원, 1986
- (2) 외래어사전. 서울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94
- (3) 외래어표기용례집(일반용어)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4) 외래어표기용례집/국립국어연구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운영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제1차~제25차 결정)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1998
- (5) 세계지도집 / 이찬, 황채기, 김현욱 공저, 개정판. 서울 : 교학사, 1994
- (6) 국어대사전 / 이희승 편저, 제3판. 서울 : 민중서림, 1994
- (7) 고등학교 세계사 / 장태항, 김영규, 송요후. 서울 : 노벨문화사, 1998. (교육부검정 1995. 9. 30)
- (8) 고등학교 세계지리 / 김일기외. 서울 : 동아서적, 1998. (교육부검정 1995. 9. 30)
- (9) 기타 많은 이개국어사전들. 영한사전(시사영어사), 독한사전(동아출판사), 불한사전(한국불어불문학회)  
 Romanov's Russian-English / English Russian dictionary, New York : Pocket Books, 1973  
 The University of Chicago Spanish-English / English-Spanish dictionary. New York : Washington Square Press, 1964  
 Oxford Greek minidictionary Greek-English / English-Greek. Oxford : Oxford U. P., 1997

가장 친숙한 중국(912)과 일본(913)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KDC 본표와 상관색인의 범례에서 밝혔듯이 이 두 나라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짧은 길이의 바른 표기는 **바로잡음**이란 표시 없이 화살표 다음에 적는다.

**910** 아시아 (亞世亞) Asia

**914.6** 말레이시아(馬來) Malaysia

... 케다아 州 ... 조호르 州 → 케다 州 ... 조호르 州

**914.72** 자바 Java → 자바

**915.4** ... 라자스탄 ... 아즈메르 → 라자스탄 ... 아지메르

**풀이** 구개음의 한글 표기 오류 및 장모음표기의 오류임

**916**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916.2** 키르기스 Kirgiz →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916.3** 카자흐 Kazakh → 카자흐스탄 Kazakhstan

**916.4** 타지크 Tadjik → 타지키스탄 Tadjikistan

**916.5** 우즈베크 Uzbek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916.6** 투르크멘 Turkmen →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풀이** 서부 투르케스탄에 있는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하는 5개 공화국의 명칭은 지역구분표에서는 약칭으로 표기해도 무방하겠으나 본표의 분류 항목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야 한다. 상관색인에서는 약칭, 정식 명칭 모두 색인어로 수록돼야 할 것이다.

**916.9** 코카시아 Caucasus → 카프카스 Kavkaz

**풀이** 코카서스(Caucasus), 코카시아(Caucasia)는 원지명 카프카스(Kavkaz)의 영어명이다.

**916.95** 그루지아 Gruziya [前 조오지아 共和國]

**바로잡음** 그루지야(조지아) Gruziya(영어명 Georgia)  
[前 조오지아 共和國]

**풀이** 카프카스지방에 있는 그루지야(Gruziya)는 러시아어명이고 조지아(Georgia)는 영어명이다. 원지명과 영어식 명칭을 굳이 모두 표기하려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어명 옆에 과거에 쓰던 영어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면 좋을 것이다.

**918.79** 사이프러스(사이프러스 島) Cyprus

**바로잡음** 키프로스(키프로스 島) Kypros(영어명 Cyprus)

**풀이** 원지명 키프로스와 과거에 쓰던 영어명 사이프러스를 병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관색인에서는 물론 원지명과 영어명 둘다 수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지역구분 표에서도 원지명으로 바로 잡아져야 한다.

920 유럽(歐羅巴) Europe

920.34 封建時代 800-1100 Age of fendalism

칼大帝時代 …

**바로잡음** 카롤루스(Carolus)大帝時代

**풀이** 카롤링거 왕조의 프랑크(Frank)왕의 라틴어명은 Carolus Magnus로서 외래어표 기법에 의한 표기는 ‘카롤루스’대제이다. 같은 왕의 독일어명은 Karl der Grosse로서 외래어표기법에 의한 표기는 ‘카를’대제이며, 프랑스어명은 Charlemagne ‘샤를마뉴’대제, 영어명은 Charles the Great ‘찰스’대제이다. 같은 왕을 언어마다 각기 자기 언어음운구조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교과서, 신문, 사전 등에서 라틴어명인 ‘카롤루스’(Carolus)대제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독일어 역사서의 한글 번역에선 ‘카를대제’로, 불어 역사서의 한글번역에선 ‘샤를마뉴대제’로, 영어역사서의 한글번역에선 ‘찰스대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왕인데 나라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혼돈하지 않기 바란다. KDC에선 각국의 역사분류 항목 아래 각기 해당 언어명으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되고 있다.

923.8 페로스 諸島 Faeroes Is → 페로 諸島 Faeroe Is

**풀이**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 북대서양에 있는 21개의 섬인데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

924 英國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바로잡음** 英國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풀이** 영국령인 북부아일랜드 만이 현재 영본국 U. K. 의 일부이지 아일랜드 공화국은 U. K의 일부가 아닌 독립국가이다.

924.034 노르만 王朝時代

… 윌리엄 I世 … 헤스팅戰爭 … 윌리엄 II世

스티븐(Stephen)

바로잡음

... 윌리엄 I世 ... 헤이스팅스戰爭 ... 윌리엄 II世

스티븐(Stephen)

풀이

Stephen[sti : vn] '스티븐'이라 표기해야 한다.

924.036 플랜태저넷 王朝

... 리차드 I世 ... 리차드 II世 → 리처드 I世 ... 리처드 II世

924.041 튜더 王朝

... 메어리(Mary) → 메리(Mary)

924.045 스튜어트 王朝

... 윌리엄 III世 및 메어리 → 윌리엄 III世 및 메리

924.05 하노버 王家

... 윌리엄 IV世 → 윌리엄 IV世

924.9 北 아일랜드

울스터(Ulster) → 얼스터(Ulster)

본 논문의 목적인 표기오류지적은 아니나 분류기호전개상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다.

924.8에 배정된 아일랜드와 924.9에 배정된 北아일랜드를 바꾸어 924.8에, U.K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를 924.9에 독립국가인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을 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924.[85]에이레 Eire(1937-1949년간의 Ireland의 국호)아래의 '924.8에 分類한다'고 한것도 924.9에 분류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DDC, NDC의 전개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925 擲逸 Deutschland, Germany

925.02 古代- 843 Ancient history

칼 大帝

바로잡음

카를 大帝

925.032 콘라드 I世 ... 색슨 王家

바로잡음

콘라트(Konrad) I世 ... 작센(Sachsen)王家

풀이

콘라드(Conrad)는 영어명, 독일어명은 Konrad[kɔnra : t]콘라트

925.033 프랑코니아 왕가 ... 로테어 II세

**바로잡음** 프랑켄(Franken)王家 ... 로타르(Lothar) II세

**풀이** 프랑코니아(Franconia)는 프랑켄의 영어명. 프랑코니아는 영어명을 영어식으로 읽지 않고 라틴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로테어(Lothair)는 로타르(Lothar)의 영어명. 같은 인명의 프랑스어명은 로테르(Lothaire), 그래서 프랑스어로 된 역사서에는 Franken은 프랑스어명인 프랑코니(Franconie)로 Lothar는 로테르(Lothaire)로 등장한다.

925.041 宗教革命時代

칼 V세 ... 캄브라이(Cambrai)條約 ... 슈말칼드 同盟  
스페인王 Charles I世로서의 Charles V세 → 927.04

**바로잡음** 카를 V세 ... 캄브레(Cambrai)條約 ... 슈말칼덴 同盟  
스페인王 카를로스(Carlos) I世로서의 독일王 카를(Karl) V세  
→ 927.04

**풀이** Charles란 왕명을 한번 살펴보자

영국왕이면 찰스(Charles), 프랑스왕이면 샤를(Charles), 독일왕이면 카를(Karl), 스페인왕이면 카를로스(Carlos)인데 DDC에서는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영어화한 명칭인 Charles로 일괄 통일해 표기하고 있는데 KDC에서 DDC를 참고할 때 이것을 인식하여 우리 나라에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사용하는 각 나라 왕명을 구별해 표기해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 중·고 교과서, 세계사책을 보면 이 왕명들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원지명으로부터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영어식 명칭으로 통일해 표기한 DDC를 따라 KDC가 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격전지이기도한 프랑스 북부의 지명 Cambrai[kābrɛ]는 '캄브레'이지 캄브라이가 아니다.

925.044 三十年戰爭 및 레오폴드 I세

**바로잡음** 레오폴트 I세

**풀이** 독일어에서 어말에 오는 유성과열음 [b, d, g]는 무성화하여 [p, t, k]로 발음됨으로 b, d, g 대신 p, t, k 으로 표기한다. Georg는 게오르크, Konrad는 콘라트, Leopold는 레오폴트, 외래어표기법이 개정되 나오기 이전에는 많은 외국인명, 지명이 영어식 명칭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었던게 사실이나 지금은 현지발음을 중시여기는 표기로 바뀌었다.

925.046 프러시아의 興起

**바로잡음** 프로이센(Preussen)의 興起로 표기해야 한다.  
프러시아는 영어명이다.

**풀이** 또 ... 칼 VI世 ... 프레데릭 大王 ... 도 '카를 VI世 ... 프리드리히 大王'으로 표기  
해야 한다. 독일왕명은 프리드리히(Friedrich der Grosse), 영어명은 프레더릭 (Fredrick  
the Great)

925.064 ... 프러시아 王 ...

**바로잡음** ... 프로이센 王 ...

925.072 ... 바이말共和國

**바로잡음** ... 바이마르(Weimar)共和國

925.1 東部擲逸 East Germany

... 프러시아의 ... 삭소니(Saxony)  
... 튀링기아(Thuringia)

**바로잡음** ... 프로이센(Preussen) ... 작센(Sachsen)  
... 튀링겐(Thüringen)

**풀이** 프러시아(Prussia)는 프로이센의 영어명, 삭소니(Saxony)는 작센의 영어명, 튀링기  
아(Thuringia)는 튀링겐의 영어명

925.3 西部擲逸 West Germany

... 헤센(Hessen), 립페(Lippe)

**바로잡음** ... 헤센(Hessen), 리페(Lippe)

**총평** 독일인명이나 지명의 원어명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 무원칙하게 어느것은 영어명  
으로 또 어느 것은 독일어명을 쓰고 있다. 영어명 윌리엄 대신 독어명 빌헬름(Wilhelm),  
영어명 조지프(Joseph) 대신 독어명 요제프(Joseph)로, 영어명 찰스(Charles)대신 독어명  
카를(Karl)로(표기는 비록 '칼'이라고 잘못 되었긴 해도) 원어명을 잘 선택해 한글로 표기  
하다가도 또 벵간 콘라트(Konrad)란 독어명 대신 영어명 Conrad로, 독어명 프리드리  
히(Friedrich)대신 영어명 Frederick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명에서도 영어명 바바리아  
(Bavaria)대신 독어명 바이에른(Bayern)을 선택하는가 하면 또 독어명 작센(Sachsen) 대  
신 영어명인 삭소니(Saxony)를 택했다. 영어명의 한글 표기도 적당히 삭소니라고 라틴어

식으로 읽어 표기해 버렸다.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래어사전, 세계지도집, 국어사전,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어야만 했다.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 표준분류표인 만큼 뜻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표기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925.7 체코 Czecho → 체코 Czech

**풀이** 이것은 인쇄오류인 듯하다.

926 프랑스(佛蘭西) France

926.02 古代 - 987 Ancient history

… 샤를 大帝 → 샤를마뉴 大帝

**풀이** 프랑크왕국의 카롤루스(Carolus Magnus) 대제의 프랑스어명은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샤를마뉴란 이름자체에 샤를대제란 의미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신문, 중·고교 교과서, 역사서, 외래어사전에서 모두 샤를마뉴대제로 적고있으니 그렇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상관색인에서도 샤를마뉴(프랑스史)로 기입어를 수록해야 할 것이다.

926.031 카페 王朝 987-1328 Capetian House

우호 카페(Hugh Capet) … 앙리 I世(Henry I) …

필립 I世(Philip I) … 필립II世 … 필립 III世 …

필립 IV世 … 필립 V世 … 존 I世

**바로잡음** 위그 카페(Hugues Capet) … 앙리 I世(Henri I) …

필리프 I世(Philippe I) … 필리프 II世 …

필리프 III世 … 필리프 IV世 … 필리프 V世 …

장 I世(Jean I)

**풀이** ① 987-1328년에 프랑스를 통치한 카페왕조는 위그 카페(Hugues Capet)에 의해 창설되고 샤를 IV세(Charles IV)에 의해 끝난다.

위그카페의 영어명은 휴 케이팻(Hugh Capet)인데 “우호카페”란 얼토당토않은 짬뽕식, 국적 불명의 표기가 왜말인가. 3판에서 이 표기를 보았을 때 4판에서는 고쳐지려니 했는데 오류가 그대로 옮겨졌다.

② DDC에서는 모두 Philip이라는 영어명으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도 KDC에 그대로 영어명, 프랑스어명, 독어명, 스페인어명 할 것 없이 모두 필립(Philip)으

로 통일해 적고 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어명의 Henri는 아예 헨리(Henry)로 적을 것이 지 발음은 앙리란 프랑스어명으로 원어명은 영어명칭인 Henry로 적고 있는데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프랑스어명 Charles는 왜 ‘찰스’라고 하지 않고 ‘샤를’이란 프랑스 어명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편리하게 ‘필립(Philip)’이라고 적고 있는 이름은 영어명이며, 프랑스어명은 필리프(Philippe), 독일어명도 로마자 철자는 다르나 역시 필리프(Philipp), 스페인어명은 펠리페(Felipe), 이탈리아어명은 필리포(Filippo)로서 우리 나라에서 이들 외국인명을 모두 구별해 표기하고 있다. 역사서나 교과서나 국어사전등을 확인해 보라.

영어권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모두 ‘필립(Philip)’으로 적기로 했다고 관용표기를 내 세운다면 우리도 응당 쫓아야겠으나 외래어표기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③ ‘존 I世’는 말도 안되는 표기이다.

이것 역시 DDC를 따라 영어명을 쫓은 모양인데 우리 나라에선 프랑스 왕은 존 I世라 하지 않고 장 I世(Jean I)로 표기한다. 참고로 같은 이름의 독일어명은 요한(Johann), 스페인어명은 후안(Juan)이다.

926.035 발루 王朝 1328-1498 House of Valois

필립 VI世 ... 존 II世 ... 프랑시스 I世

... 프랑시스 II世

바로잡음

발루아 王朝

필리프 VI世 ... 장 II世 ... 프랑수아 I世

... 프랑수아 II世

풀이

① Valois[valwa]는 외래어표기법에서 발루아로 적고 있다.(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3절 프랑스어의 표기 제5항 반모음[w]의 표기를 보라)

② 프랑수아 I世(François I)의 영어명은 프랜시스 I世(Francis I)인데 ‘프랑시스’란 표기는 영어명인 Francis를 적당히 프랑스어식으로 읽은 결과로 나온 표기일 것이다. 프랑스인 중에 Francis란 이름도 있는데 이때는 ‘프랑시스’라 읽는다. 유명한 시인 Francis Jammes이 그 예다.

926.063 王政復古, 1815-1848 Restoration

... 루이 필립(Louis Philippe)

바로잡음

... 루이 필리프(Louis Philippe)



**풀이** 왜 이 이름을 철저하게 영어식으로 읽어 루이스 필립이라 하지 않고 프랑스어 철자를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프랑스어식, 영어식 짬뽕 한글 표기를 했는가.

프랑스 역사에 관한 원어 분류항목을 영어로 표기 한것은 범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괜찮으나 주의 설명어에 나오는 인명의 한글 표기는 독일인명 만큼이나 오류가 많다. 일관성 없이 어느 때는 프랑스 고유명을, 또 어느 때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영어명을 채택했으며, 어떤 때는 영어명을 채택해 읽기는 프랑스어식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한 점은 무원칙하기 짝이 없다. 귀찮아도 확인 작업을 거쳤어야 했다고 본다.

927(스페인), 928(이탈리아), 929(러시아) 및 942(미국) 등의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오류의 검토결과는 제한된 논문지면 관계로 여기서 모두 생략한다.<sup>24)</sup>

## 2) 외래어의 표기

시간상의 제약과 검토의 효과를 겨냥하여 KDC 4판상의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오류 검토서 주제의 성격상 외국인명, 지명이 가장 빈번히 나오는 900대(역사 및 지리)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삼았듯이 외래어표기 오류검토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외래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중의 하나인 590대(가정학 및 가정생활)를 선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590 家庭學 및 家庭生活 Home economics and family living

#### 592.21 커텐, 쇼파덮개 ... 타올 → 커튼, 쇼파덮개 ... 타월

**풀이** ① curtain은 카텐, 커텐, 커튼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적도 있으나 표준화 표기는 ‘커튼’이다.

② sofa는 웬일인지 발음이 잘못된 쇼파라는 표기가 쇼파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쇼파’가 바른 표기이다.

③ towel도 과거에는 타올, 타올등으로 표기되었으나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타월’이 바른 표기이다.

### 592.3 家庭의 衣服

#### ... 캐주얼服과 → 캐주얼服과

24) 필자가 9월 28일 논문투고 이후 게재여부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공교롭게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논문투고규정이 개정되어 아무리 길어도 30페이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필자에게 논문의 길이와 내용을 재조정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여 전 논문을 재조정 할 수가 없었다.

**풀이** casual[kæʒuəl]은 ‘캐주얼’로 표기된다. 흔히 ‘캐쥬얼’이라고들 잘못 표기하는데 구개음표기에서 ‘쥬’대신 ‘주’로 표기하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592.353 ... 자켓 → 재킷

**풀이** jacket[dʒækit]은 자켓트, 재킷트, 자켓, 짜켓 등 다양하게들 표기하고 있는데 ‘재킷’이 표준화 표기이다.

592.362 ... 망토, 자켓 ... → 망토, 재킷 ...

**풀이** manteau [māto] ‘망토’는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로 로맨스어의 [p, t, k]를 ‘ㅃ, ㅌ, ㄱ’으로 표기하지 않고 ‘ㅍ, ㅌ, ㅋ’으로 표기한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원지 발음에 가까운 ‘망또’가 아닌 망토’로 표기하고 있다. Paris를 빠리가 아닌 파리로 표기하고 있듯이.

593.6 차밍 Charming → 차밍

**풀이** 구개음표기의 오류이다.

594.5541 ... 스프나 소스 ... → 수프

**풀이** soup[su : p]는 ‘수프’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습 또는 스프라고들 표기하는걸 본다. 스프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라서 스프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프랑스어 역시 soupe[su : p]로서 ‘수프’라고 표기해야 바른 표기이다.

594.5545 ... 마이말레이드 ... → 마말레이드

**풀이** marmalade[má : (r)mələíd]는 마말레이드가 바른 표기이다.

594.5546 ... 샤베트 → 셔벗

**풀이** sherbet[ʃ : (r)bət] ‘셔벗’이 바른 표기이다.

シャベット(샤베트)란 일본에서 사용하는 외래어표기로부터 ‘샤베트’란 표기를 만들어 낸 듯하다.

594.75 바베큐 → 바비큐

**풀이** barbecue[bá : (r)bi:kjù : ] ‘바비큐’가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의해 바른 표기라서 사전에서, 용례집에서도 모두 바비큐로 적고 있는데 실은 필자 자신도 식당메뉴를 볼 적마다 바베큐라고 표기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본다. 그렇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이

한국말을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편하기 때문이겠으나 한글 맞춤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외래어표기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595.4 ... 흠패션 → 흠패션

**풀이** fashion[ʃæʃən]은 ‘패션’이 바른 표기이다. ‘패션스타일’, ‘패션쇼’는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595.41 ... 리노리움 ... → 리놀룸 ...

**풀이** Linoleum의 [ l ] 표기의 오류이다.

595.43 커텐과 ... (블라인드 등) → 커튼과 ... (블라인드 등)

**풀이** blind의 [ l ]표기의 오류이다.

일반적으로 590대의 외래어표기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표기가 잘 되어 있다. KDC 3판에 비하면 대단한 개선이다. 그러나 [ l ] 음가 표기의 오류와 구개음 ㅈ, ㅊ 표기의 오류가 외국인명이나 지명의 한글 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에 띈다.

참고로 문헌정보학분야의 외래어표기도 대체로 잘 되어 있으나 눈에 띄이는 오류가 몇 개 있어 여기 지적 해본다.

Internet은 ‘인터넷’이 바른 표기인데 ‘인터넷트’로(566.575;004.575), digital은 ‘디지털’이 바른 표기인데 ‘디지털’(567.435)로, pamphlet은 ‘팸플릿’이 바른 표기인데 ‘팸플렛’(024.92)으로, alcove는 ‘알코브’가 바른 표기인데 ‘알코우브’(022.42)로 표기되어 있다

### 3) 약칭, 두문자어의 표기

외래어표기 중에서 검토해 보지 않은 약칭, 두문자어의 표기를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KDC 4판 본표내의 분류 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 언급된 약칭, 두문자어가 상관색인에서 색인어로 기입될 때 명칭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에는 약칭, 두문자어의 우리 국어 문맥속에서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명, 기관명의 약칭내지 두문자어(initialisms and acronyms)의 경우 어군의 각 단어의 첫 글자들(initials)을 순서대로 철자하여 해당언어의 알파벳 명칭에 따라 읽게 된다. 그래서 John F.Kennedy는 JFK‘제이에프케이’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FBI ‘에프비아이’로 영어 알파벳 명칭을 따라 읽으며, 프랑스 초고속열차의 약칭인 TGV(Train à Grande Vitesse)는 프랑스어 알파벳 명칭을 따라 ‘테제베’라 읽지 영어 알파벳 명칭인 ‘티지브이’로 읽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명(Full name)을 이루고 있는 어군의 각 단어의 첫 글자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두문자어(acronyms)가 독립적인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될 수 있는(읽혀 질 수 있는) 경우 읽는 방법이 다소 불규칙 적이라 상관색인에서 이들 두문자어의 한글 표기시나 또는 국문색인에서의 혼합배열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예 로마자는 따로 배열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면 ANZUS(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는 ‘앤저스’라고 읽는데 APEC(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에이펙’으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나토’로 읽는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네이토’라고 읽고 있다.

상관색인에서 약칭이나 두문자어는 모두 한글 번역명만으로 수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개 외국기관이나 조직의 명칭은 한글 번역명보다는 외국어약칭이나 두문자어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일 본표에 분류 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 나타난 주요한 약칭, 두문자어라면 상관색인에서 반드시 외국어약칭, 두문자어와 한글 번역명을 둘다 삽입해 주어야 할 것이다.

KDC 본표에 나타난 ISBN, ISSN, MARC, CIP 등을 상관색인에서 찾아보니 오직 MARC만이 ‘기계가독목록(MARC)’라는 한글번역명과 ‘마크(MARC)’란 외국어 두문자어의 한글 발음 표기의 두 기입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다. ISBN은 오직 한글번역명인 ‘국제표준도서번호’로서 괄호안에 ISBN의 병기없이, 또 ISSN도 오직 한글번역명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ISSN이란 외국어 약칭의 병기 없이, CIP도 ‘출판시표준목록’이라는 한글번역명만으로 색인어가 나타나 있을 뿐 외국어 약칭의 기입은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상관색인에서 영어 철자‘C’로 시작하는 두문자어를 찾아보니 주로 “씨”대열 아래 다음 것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 외래어표기법은 [s]의 음가를 된소리 ‘ㅍ’이 아닌 ‘ㅅ’으로 표기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sup>25)</sup>

씨디롬 ; CD-ROM / 讀書	029.6
씨디롬 ; CD-ROM / 管理	024.995
씨지에스 ; CGS 電氣單位	561.61
씨티투 ; CT2 (電話工學)	567.673
씨피유 ; CPU(電算工學)	566.3

모두 ‘시디롬, 시지에스, 시티투, 시피유’ 등으로 표기가 바로잡아져야 한다. 이는 ‘system’을 씨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center’를 썬터가 아닌 센터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25) 그러나 중국어 표기에선 장쩌민(江澤民), 쑨원(孫文) 등 된소리 표기가 일부 허용되고, 일본어 표기에서도 쓰시마(對馬), 쓰쿠바(筑波)에서 처럼 ‘ㅈ’은 ‘ㅅ’로 표기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유일한 표준분류표인 KDC 4판내의 각 분류기호 옆에 주어진 주제개념을 나타내는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 선정된 용어 중에서 또 상관색인어의 기입어 중에서 외국인명, 지명, 외국어명사, 외래어의 한글 표기의 표준화여부를 분석 검토해 보았다. 시간 제약상 분류표 전체를 혼자서 검토할 수 없는 관계로 밀착 검토대상으로서 외국인명과 지명은 역사와 지리를 다룬 900대 중에서도 910(아시아)과 920(유럽)을 중심으로, 외래어표기는 590(가정학 및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약칭이나 두문자어의 표기는 상관색인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KDC 4판은 본표와 상관색인의 범례에서 외국인명이나 지명, 외국어명사, 외래어의 한글 표기시 중국과 일본의 한자 인명과 지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따랐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준분류표로서 정보의 정확성과 검색의 효율성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일관성 있는 표준화 표기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임이 들어 났다.<sup>26)</sup> 분류표 내용개정에는 신경을 썼지만 상상외로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표기에 관한 한 여러 종류의 표기 오류가 포착되었다. 3판에 비하면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가 많이 나아 졌지만 표준분류표의 표기로서는 미흡해 보였다. 표기오류 중에도 가장 많은 유형중의 하나는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서 현재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원지명, 원어명 대신에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DDC의 영어화한 명칭을 그대로 가져다가 외국인명, 지명으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같은 로마자를 표기 문자로 사용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간에도 언어마다 음운 규칙이 달라서 한글로 이들 외국인명, 지명을 표기할 적에 유의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어의 구별 없이 로마자를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처럼 “적당히” 읽어 한글로 표기한 오류가 너무나 많았다. 내용확인에는 신경을 썼겠지만 표기 확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음이 곳곳에 드러났다.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항상 주변의 여러 요소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또 지역적인, 시대적인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언어의 이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언어를 글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그 언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정서법이 그것

26) 한경신교수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문제점”(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9호, 1999. 3, p. 37)에서, 제4판에서의 개정은 서양악기명의 외래어표기를 정돈한 것 외에는 KDC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KDC 초판에서 4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별 개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악기의 외래어표기도 3판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비올’을 바이올(677.42)이라고, ‘만돌린’을 만도린(677.65)이라고 ‘벤조’를 벤조(677.67)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이다. 우리 국어정서법에는 한글맞춤법 외에도 표준어 규정,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등 표기상의 제 규칙이 포함 되어있다. 비록 외국에서 온 말이요, 외국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이지만 적당히 표기하지 않고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준화, 통일된 표기를 하고 있는 신문, 중·고교 교과서, 국어사전, 지도첩 등은 도서관분야보다는 국어정서법의 중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언젠가 KDC 5판이 나올 때에는 학문의 발전 추세에 따른 내용상의 개정뿐 아니라 본표의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로 사용된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도 말끔히 표준화되고 상관색인에서도 표준화된 표기의 외국인명, 지명, 외래어가 색인어로 기입됨으로서 표준 분류표로서의 구실을 보다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5판에서는 분류항목이나 주의 설명어에서 중국과 일본 한자인명, 지명에도 원지음의 한글 표기가 부가되고 상관색인에는 우리 한자음의 중국인명, 지명과 일본 한자인명, 지명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원지음의 한글 표기도 색인어로 기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沖繩(충승) 뿐 아니라 오키나와가, 鹿兒島(녹아도) 뿐 아니라 가고시마가, 西藏(서장) 뿐 아니라 티베트, 시짱이 상관색인에 기입어로서 수록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어문규정집. 서울 : 대한교과서, 1996.
- 국립국어연구원. 기본외래어용례집. 서울 : 동연구원, 1995.
-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표기용례집. 서울 : 동연구원, 1998.
- 국어연구소. 외래어표기용례집(일반용어). 서울 : 대한교과서, 1998.
- 국어연구소. 외래어표기용례집(지명, 인명). 서울 : 법제연구원, 1986.
-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표)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 369-389.
-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3호 (1997.9) : 7-22.
- 세계지도집 : 한국, 세계/이찬, 황재기, 김현옥 공저. 개정판. 서울 : 교학사, 1994.
- 외래어사용실태와 순화방안 : 특집.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1998.
- 외래어표기법 : 특집.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1996 겨울)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1996.
- 이은정. 한글맞춤법·표준어해설. 서울 : 대제각, 1988.
- 日本十進分類法, 新訂 8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8.

-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전개상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3.3) : 31-6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 동협회, 1997.
- Bourne, Ross. "Standards who needs them?" *Library Association record* 96(3), March 1994 : 148-9.
- Clack, Doris Hagrett. *Authority control :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 ALA, 1990.
- Cleveland, Donald B. and Cleveland, Ana 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tracting*.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1983.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ition 21. Albany, N.Y. : Forest Press, 1996. 4 vols.
- Gorman, Michael. "Cataloguing the chaos."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해외석학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 1996년 11월 25일 [자료집] 부산 : 동아대학교도서관, 1996. pp. 31-38.
- Gredley, Ellen and Hopkinson, Alan. *Exchanging bibliographic data*. 서지정보의 상호교류. 정필모, 현규섭, 오동근 공역.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3.
- Hagler, Ronald. *The bibliographic record and information technology*. 2nd ed. Chicago : ALA, 1991.
- Hammond New Century World Atlas*. Maplewood, N.J. : Hammond, Inc., 1997.
- Languages of the world : cataloging issues and problems/* Martin D. Joachim, editor. New York : Haworth Press, 1993.
- Marcella, Rita and Newton, Robert.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 Aldershot : Gower, 1994.
- Oddy, Pat.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97.
- Webster's new biographic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 Merriam-Webster, Inc., 1988.
- Webster's new geographic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 Merriam-Webster, Inc., 1984.
- Wellisch, Hans H. *The conversion of scripts : its nature, history, and utilization*. New York : Wiley, 1978.